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이다*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6. 12. 24(토) ~ 2017. 1. 21(토)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말라본 케손시티 빅토리 에비뉴 16개 학교에서 모인 학생들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그렇게 작지 않은 규모의 어학원입니다.
수업	1:1 수업 3시간, 소그룹(6명) 수업 2시간, 대그룹(12명) 수업 3시간 몇몇 선생님들을 빼놓고는 다들 유머감각도 많고 에너지도 넘쳐서 수업들을 때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젊은 편이고 너무 나이 드신 분을 만나면 수업시간이 좀 루즈해 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수업은 괜찮은 편이고 4주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집니다. 과제는 4주 동안 원래는 에세이 7개를 써야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5개까지만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제는 선생님들에 따라 다들 차이가 있다. 과제가 많은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과제가 한번도 없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Activity	민도르 섬, 마닐라 투어, 팍상한 폭포, 따가이따이 4가지가 있는데 팍상한 폭포 빼고는 전부 다녀왔습니다. 학교 측에서 민도르 섬과 마닐라 투어에 대한 액티비티 비용을 지원해줘서 부담스럽지 않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따가이따이는 화산섬으로 가서 말을 타고 화산섬을 올라가게 되는데 무척 아름다운 섬이지만 말과 말 조련사들에 대한 대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 연민이 들었습니다.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날씨는 비가 언제 올지 모르므로 항상 우산을 들고 다니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햇빛이 뜨겁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날씨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전	너무 늦은 밤이나 골목길만 아니면 큰길거나 그런 곳은 위험하지 안하고 생각됩니다. 웬만하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o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2명이서 함께 사용했는데 에어컨도 나오고 대체적으로 쾌적하긴 했지만 방마다 수압이 너무 약해서 화장실이 자주 막힌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 니다. 좀 좁다는 생각빼고는 불편한 점은 거의 없었는데, 저희 방에서는 가스가 올라오는 듯이 매케한 냄새가 계속해서 났었습니다. 매일 청소해 주시는 분도 계셔서 청결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지 않으면 벌레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쥐가 나왔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0)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0 )기타( ) 대체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끌리지 않을 때는 주위에 있는 식당들 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음식들 이 짜거나 달거나 해서 입맛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	교통 체증이 무척 심합니다. 어딘가에 나가고 싶다면 시간을 넉넉히 잡 고 나가야합니다. 교통은 여러 가지가 있고 가까이 갈 때는 지프나 트 라이시클, 멀리 나갈 때는 콜택시를 이용하면 저렴하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 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기숙사보증금	69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약 410000	달러로 환전 후 페소로 환전 (약 17447페소)
합계	110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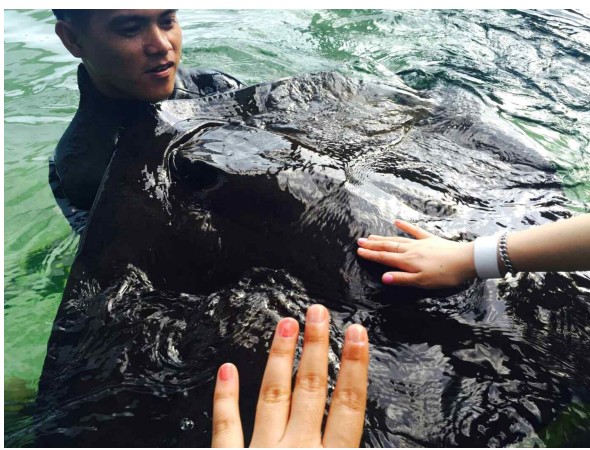


#### 5. 출국 전 준비사항

<p>쇼핑을 할 때 자신이 무엇을 사갈지 미리 알아두면 편하게 쇼핑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쇼핑목록을 작성해 오는 것도 좋고, 여행 목록도 작성해 오면 주말 마다 어디 갈지 고민 하지 않고 여행 시간을 넉넉하게 벌 수 있습니다.</p>
---

## 6. 본인 소감 및 평가

4주는 짧아서 영어실력이 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4주라는 짧고도 긴 시간동안 외국에서 살면서 외국인들과 대화하고 여러 새로운 장소들을 여행하고 학교에서 함께 온 새로운 친구들과 다른 학교에서 온 새로운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에 대한 애기도 하고 친해진 아주 진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기회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지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원 받는 기회가 한 번 뿐이라는게 너무나 아쉽고 이제 4학년이 돼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게 아쉽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마닐라 오션 파크(가오리 만지기)</p>	<p>스타 시티(놀이공원)</p>
	
<p>따가이따이</p>	<p>이스트우드시티</p>



씨푸드 마켓(크랩)



리잘파크